

새 즈른해의 바람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새 천년이 밝았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이다. 2000년 1월 1일에 뜨는 해나 1999년 12월 31일 뜨는 해나, 그게 그것인 걸 2000년 1월 1일에 뜨는 해를 보겠다고 내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 바다에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해수욕장 근처 도로는 그야말로 운집한 수많은 차량들로 난장판이 되었다고 한다. 새 즈른해를 보겠다고, 저마다 도로 한 가운데 주차를 해놓고 백사장으로 향하는 바람에, 평상시엔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눈에 뻘히 보이는 곳을 통과하는데 6시간도 더 걸리고 있다는 아침방송을 들으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새 천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적 사건에 내가 너무 무딘 건지 다른 사람들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어쨌든 Y2K니, millenium bug니 하는 말들이, 작년초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1년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다는 단순한 의미 이상의 무엇이기는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 고분자학회의 역사에도 2000년의 시작은 단순히 1999년 다음 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비록 간접선거였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수석부회장과 평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학회도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9로 시작되는 연도에 대해 20으로 시작되는 시대적 전환기에 발맞춘 변화의 조짐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젊어지는 것도 그 한 예이고, 총회가 그저 단순한 통과절차가 되지 않는 현실도 그렇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학회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이만큼 큰 발전을 거듭해 온 학회이지만, 새 즈른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 저것을 생각해보면, 여기저기서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대학이나, 혹은 연구소나 산업체냐에 따라 자신이 속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점이 다르며,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가치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키워야 할 학회라면 저마다 이제는 필요한 목소리를 내어 학회발전을 위해 할 말은 해야 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달라져야 할 하나가 아닐까 한다. 학회운영이 특정 학연에 지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학회운영에 관해 회원들의 불만이 있을 때, 이제는 그것이 학회발전을 위해 정당한 일이라면 제대로 그것도 신속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년에 2차례 있는 총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쉽터>난도 쉬어가기 수준의 수필 발표의 장은 물론, 학회발전을 위한 건전한 제안과 비판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토로되는 신문고나 자유발언대 같은 광장의 역할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새 즈른해를 맞아 학회에서 달라져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적어볼까 한다. 혹시라도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학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한다. 회원의 수나 학회 발표논문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분명히 학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해마다 봄가을로 2차례 있는 총회와 연구논문발표회

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들은 발표장소 확보 문제 때문에 더 큰 애를 먹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준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학기중에 학회를 옴으로써 특히 금요일의 발표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새 즈문해를 맞아, 학회를 반드시 봄, 가을 2차례 개최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4월과 10월이 불가피하다면 토, 일요일에 개최할 수도 있지 않은지, 구두논문발표수를 줄이고 포스터논문발표수를 더 늘리는 방법은 어떤지 등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런 점에서, 교수나 박사급 연구원들이 공통된 주제하에 깊이있는 내용을 발표하는 심포지엄식 학회발표는 지금도 권장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발표장 확보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이제 간천회도 간단한 다과회 정도로 형태를 바꾸어, 회원들의 부담도 줄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회원들의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 학회를 이끌어 나갈 신진 연구 그룹들끼리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새 즈문해에 학회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요즘 봄 가을 학회에 참석해 보면 아는 얼굴 못지 않게 모르는 얼굴이 더 많을 때도 있다. 분야별로 신진학자들끼리 교류하고 토의하는 모임을 활성화시켜주면 우리 고분자학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리라 확신한다. 미래의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이 우리 학회 회원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학회도 자존심있는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방식이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화시대에 우리 학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저명학자의 초청경비를 마련하고 필요이상의 거창한 리셉션을 베풀기 위해, 기업체 모금이나 비싼 등록비 등 불필요한 관행이 습관시되어 온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개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적지않게, 규모 큰 외국학회에 참석하면서, 초청연사까지 등록비 일체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제 우리 학회도 기조강연자 1-2분을 제외하곤 외국학자들이 자비로 우리 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형적인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자존심을 지키는 학회가 되자.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대접을 위해, 체면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라면 무엇 때문에 개최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새천년엔 이것부터 달라져야 하리라.

지금까지 회원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 온 학회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새 즈문해엔 회원을 위해 조금더 회원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덧붙이고 싶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SCI논문게재가 모든 업적평가의 확실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요즘, 가령 폴리머지나 Korea Polymer Journal에 게재되는 논문의 높은 게재료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치솟는 물가와 인쇄비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 없어서 필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게재료가 우리 학회지에 좋은 논문을 유인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지금까지는 학회발전을 위해 어느정도 수익사업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각종 학회활동사업의 경우, 회원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최소한 필요한 수익자 부담비용만 지불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적지않은 회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 막 새천년이 시작되었다. 우리 학회가 21세기에 걸맞는 초우량학회로 더욱 발전하느냐, 20세기의 정체된 학회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느냐 하는 것은 학회를 운영하는 분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회원 각자의 학회에 대한 더욱 뜨거운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회가 발전해야 내가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 고분자학회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있는 학회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은가?